

보도시점 2026. 8. 26.(수) 06:00
< 8.26(수) 석간 >

배포

2026 8. 25(화)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원팀으로 총력 대응

-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후 첫 번째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8.26일(수)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박 본부장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통상추진위원회로, ▲대미 통상현안 및 향후 대응계획,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 계획, ▲G20 무역분야 의제 논의현황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최근 대미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관세·비관세·대미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를 뒷받침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이어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통상 네트워크의 미개척지인 남미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G20 무역장관회의('26.9.30.~10.1.)를 앞두고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측 대응 방향을 점검하였다.

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남미 지역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긴밀히 공유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미 통상현안을 비롯한 주요 통상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정혜인 (044-203-5622)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
	통상협정교섭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선애 (02-2100-1370)
		담당자	사무관	장현태 (02-2100-1374)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주현 (044-203-5930)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3-5936)

□ 회의 개요

- (일 시) 8.26(수) 오전 10시
- (장 소) 산업통상부 506호 대회의실(세종)
-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 재경부,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국토부, 과기부, 고용부, 기후부, 복지부, 중기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금융위, 공정위 등

□ 상정 안건

- ❶ 대미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 ❷ 한-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
- ❸ G20 무역 분야 의제 논의 현황 및 대응계획

□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05~10:20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0:20~11:25 (65')	토 론	참석자
11:25~11:30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